

블라지(Blasi)의 자아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추 병 완(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요약》

도덕적 동기화에 관한 연구와 이론들은 오랜 기간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정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하는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도덕적 정체성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도덕성의 중요성 혹은 현저함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블라지(Blasi)의 자아 모델(self model)은 도덕적 인지에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블라지는 도덕 판단이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책임감 판단을 통해 여과되어 자기 일관성을 향한 경향성에 의해 행동으로 추진된다면, 도덕적 행동을 더욱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정체성이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는 있으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경험 연구의 부족과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도덕적 행동의 기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이상적 자아와 현실 자아와의 비교 방법, 도덕적 정화의 방법, 부모의 훈육 방법과 봉사 활동의 실천이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 : 도덕적 정체성, 도덕교육, 도덕적 동기화, 블라지(Blasi), 자아 모델

I. 서론

영웅적인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평생을 도덕적 대의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뿌리는 무엇일까? 2차 대전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무고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을 섰었다. 그런가 하면 간디와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bwchu@cnue.ac.kr

도덕적 대의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엄청난 유혹과 충동에도 굴하지 않고 타인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도덕적 충실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물음은 바로 '언제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인간다움의 실현에 기여하는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가?'였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도덕 심리학자들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 주는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정과 설명에 근거하여 이른바 도덕적 기능 수행(moral functioning)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 내었다.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었던 도덕 심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콜버그(Kohlberg, 1969)의 인지 발달 이론은 도덕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도덕적 추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호프먼(Hoffman, 1970, 2000)의 도덕 사회화 이론은 도덕적 정서인 공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 인지 모델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 주는 기제로서 도덕 기준과 자기 제재를 강조하였다(Bandura, 1999).

최근에 상당수의 심리학자들은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적 자아 혹은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더욱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도덕적 동기화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덕적 정체성의 역량은 자신의 자아 체계에 일치하여 행동하도록 동기화되어 있는 인간의 타고난 경향성에 그 근거를 둔다(Hardy, 2006, p. 208). 그러므로 어떤 덕목이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덕목과 일치하여 생활하려는 의무감, 책임감, 열망이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달리 말해, 도덕적 덕목이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자신의 도덕감(sense of morality)에 일치하여 행동하려는 동기를 낳게 된다.

이러한 근거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를테면 블라지(Blasi, 1995, pp. 233-234)는 "도덕적 정체성 안에서 도덕적 관심(예: 도덕적 원리, 목적, 결단)은 자신의 동기적·정서적 체제와 통합되고, 책임감을 포함하는 가운데 행위 수행 과정의 대상을 만들어 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on, 1992; Bergman, 2002, p. 116)은 도덕적 정체성이 자아와 도덕 체제의 통일을 수반한다고 보았으며, 모쉬맨(Moshman, 2005, p. 121)은 도덕적 정체성이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존중과 관심에 기초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도덕 행위자로서 자기 나름의 분명한 이론을 갖게 만들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먼로(Monroe, 2003, p. 405)는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덕적 정체성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제약함과 동시에 도덕적 동기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렇듯 오늘날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주는 일종의 자기조절 기제로 여겨진다(Aquino & Reed, 2002, p. 1424).

도덕성에 관한 몇 가지 모델들이 정체성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라지의 자아 모

텔은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가장 선도적인 연구로서,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위 간의 연관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필요로 한다.”(Blasi, 1990, p. 53)는 블라지의 주장처럼, 그는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을 연결하는 심리학적 기제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도덕적 이상이나 목표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자신의 도덕 판단을 도덕적 행위로 옮기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도덕적 동기화의 토대로서 도덕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블라지의 연구에 대한 분석(정창우, 2004; 손경원, 2005; 이인재, 2007; 정영우, 2010)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도덕적 정체성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블라지의 자아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제시한 이론 체계의 주요 특징과 장단점,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제대로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여기서는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하여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지닌 이론적 특징을 개관하고, 그의 이론 체계가 지닌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그의 자아 모델이 도덕적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주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

1.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추론과 정서

인지발달론자인 콜버그(1969, p. 347)는 도덕 원리가 근본적으로 도덕 행위를 동기화시켜 준다고 가정하였다. 개인은 도덕적 추론이 발달함에 따라서 도덕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 원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가장 높은 도덕적 추론 단계에서 도덕 원리와 그것의 보편적·규정적 성격은 더욱 현저해지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은 자신의 도덕 판단에 일치하여 행동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는 도덕적 이해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유하는 것이고, 감정과 같은 도덕성의 다른 측면들은 그 과정에서 아무 미미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 영역 이론을 비롯하여 콜버그의 이론에 친화적인 도덕성에 대한 여러 접근법들은 도덕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인지의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호프먼은 도덕성에서 도덕적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도덕적 감정이 도덕적 동기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호프먼(Hoffman, 2000, p.

239)은 “강의나 설교와 같은 차가운 교훈적 맥락에서 학습된 추상적인 도덕 원리들은 동기적인 힘을 결여하고 있다. 도덕 원리에 대한 공감의 기여는 차가운 도덕 원리들을 친사회적인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로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공감적 정서로 충전된 인지적 표상은 도덕 원리에 동기적 힘을 부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실제적인 동기적인 불꽃은 도덕적 이해가 아니라 도덕적 정서라는 것이다. 호프먼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 정서를 안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 행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동기적 불꽃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Hardy, 2006, p. 208).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밝혀내면서(Eisenberg, 1987; Hoffman, 2000),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정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도덕성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법들은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도덕적 인지와 정서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 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인지와 정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둘 모두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근본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Eisenberg, 1986; Gibbs, 2003). 이러한 관점은 도덕적 인지와 정서의 상호 연관적이고 분리 불가능한 본질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정서가 도덕적 행위의 동기화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개념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

개념적으로 볼 때, 동기화의 도덕적 인지·정서의 원천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개인에게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시켜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이 비범한 도덕적 행위, 일관된 도덕적 행위, 지속적인 도덕적 헌신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덕적 인지·정서의 동기적 원천과 도덕적 행위를 매개하는 여타의 조절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개재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들이 상이한 행동 방안들을 취하게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도덕적 인지·정서 동기는 도덕적 상황에서의 몇 가지 동기들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이다. 도덕적 인지·정서 동기의 존재 자체가 도덕적 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여전히 여타의 조절 변인들이 존재한다(Hardy & Carlo, 2005, p. 234).

경험적으로 볼 때,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정서가 도덕적 행위와 긍정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연합의 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Eisenberg & Miller, 1987, p. 116). 그러므로 도덕적 인지·정서 동기는 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기에, 도덕적 행위에서의 상당한 변이와 개인차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2. 도덕적 정체성 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도덕적 추론과 행위 간의 온건한 관계를 고려한 블라지는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콜버그의 관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동시에 여타의 도덕심리학자들은 도덕적 추론과 행위를 매개하는 조절 변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도덕적 정서와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학자들은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정서에 덧붙여 정체성이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하는데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제안한 여러 모델들의 공통점은 도덕성이 개인의 자아에 대한 감각과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심적이며, 자신의 도덕적 관심에 일치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증가시켜 준다는 사실이다. 일부 학자들은 도덕성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가치 체계에서 도덕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도덕적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Hardy & Carlo, 2005, p. 234; Hardy & Carlo, 2011, p. 495). 나아가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감정으로부터의 동기화를 훨씬 뛰어 넘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도덕적 동기의 보충적인 원천으로 여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정체성은 비범한 도덕적 행동과 지속적인 도덕적 헌신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겨졌다.

도덕적 정체성은 정체성 이론과 도덕성 이론을 가로지르는 용어이기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단히 말해 도덕적 정체성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도덕성의 중요성 혹은 현저함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법들은 성품 관점(character perspectives)과 사회 인지 관점(social cognitive perspectives)으로 분류된다(Hardy & Carlo, 2011, p. 496). 성품 관점은 도덕적 정체성을 매우 안정되고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사회 인지 관점은 유동적이며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품 관점으로 분류되는 접근법들은 성격 특성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정체성에도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본다. 한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도덕성이 어느 정도 중심적인지 그리고 정체성이 그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목적과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블라지(Blasi, 1983)이다. 그는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 간의 간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도덕적 정체성이 그러한 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on, 1992)은 도덕적 정체성을 자아와 도덕적 목적 간의 통합으로 파악하였다. 그들은 개인적 목적과 도덕적 목적의 통합은 도덕적 동기화 및 도덕적 헌신의 강력한 원천이라고 보았다.

그런가하면 도덕적 정체성을 이타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Hardy & Carlo, 2011, p. 497). 이타적 성격은 공감, 사회적 책임감, 도덕적 추론과 같은 타자 지향적 경향성과 특성의 집합으로서 친사회적 행동을 동기화시켜주고 반사회적 행동들을 감소시켜 준다(Carlo, PytlikZillig, Roesch & Dienstbier, 2009, p. 280). 최근에는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정체성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보는 내러티브 접근법을 도덕 정체성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내러티브 도덕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법은 도덕적 정체성의 본질은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주제들이 개인적 삶의 내러티브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총체적으로 위여져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Pratt, Arnold & Lawford, 2009, p. 312).

이와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도덕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 인지 이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Hardy & Carlo, 2011, p. 498). 사회 인지 이론은 성격을 상황적 영향력들과 상호작용하는 인지적·정의적 과정들의 역동적 체계로 파악한다(Bandura, 1986). 이에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 사회 인지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도덕적 기능 수행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사회 인지적 메커니즘을 찾아내고자 한다. 여기에는 도덕적 정체성을 상시 이용 가능한 도덕적 도식으로 보는 입장, 자기 중요성을 지닌 사회 정체성으로 보는 입장, 도덕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헌신으로서 보는 입장, 자서전적 기억에서의 자기 표상으로 보는 입장, 도덕적인 이상주의적 자아로서 보는 입장 등이 존재한다(Hardy & Carlo, 2011, p. 498).

하지만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학자들도 많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사회 영역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Hardy & Carlo, 2011, p. 509). 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 간의 불일치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 인습적, 신중한, 개인적인 판단과 같은 다양한 판단들이 함께 작동하므로 그러한 판단들의 조율과 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불필요하게 도덕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여타의 성격 변인들을 포함시키는 데에 못마땅한 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누치(Nucci, 2000, p. 2)는 도덕적 정체성은 복잡하고 맥락적인 도덕적 판단을 도덕적 자아감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지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은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다(Hardy & Carlo, 2011, p. 509; Monroe, 2001, p. 504). 첫째,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도덕심리학과 정체성 문헌들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둘째, 도덕적 정체성은 자아개념이 사회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결과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추론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도덕 발달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도덕적 정체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존감과 일관된 행동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가교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덕교육에서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Ⅲ.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

1. 블라지의 자아 모델

도덕성에 관한 몇 가지 모델들이 정체성의 역할을 중시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은 정체성에 관한 가장 정교한 개념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위 간의 연관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블라지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인간 존재의 중심, 인간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한다(Stets & Carter, 2011, p. 194). 개인들은 그들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자의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경쟁, 친절, 우정이 자신의 핵심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자가 자신에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정체성은 각자의 삶을 지시하고, 목적을 제공하고, 평생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도덕적인 것을 그에게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확인할 때, 그러한 도덕적 정체성은 참된 자아로 경험됨과 동시에 그의 삶을 지시하는 심층 원리가 된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블라지의 설명은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콜버그 이론의 유산인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블라지는 도덕적 기능 수행의 자아 모델(self model)을 제안하였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인지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판단과 행위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델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Blasi, 1983, pp. 198-199).

첫째,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도덕 판단은 책임감 판단을 거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옳은 혹은 도덕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둘째, 책임감 판단의 기준은 개별적 자아의 구조, 즉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유래한다. 도덕적 정체성은 개인차를 반영하고 있기에,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 자아감의 중심적 혹은 본질적인 것인지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상은 각 개인들의 자아개념에서 차지하는 중심성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정체성은 내용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이 풍부한 것을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핵심적인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각 개인의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첩

되지 않는 도덕적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도덕적 정체성에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일군의 공통된 도덕적 특성들이 존재한다.

셋째, 자아 모델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자기 일관성(self-consistency)이다. 블라지에 의하면, 자신의 자아감에 일치하여 살고자 하는 자연적인 인간의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가 도덕적 관심에 집중할 때, 이러한 경향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핵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블라지는 도덕 판단이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책임감 판단을 통해 여과되어 자기 일관성을 향한 경향성에 의해 행동으로 추진된다면, 도덕적 행동을 더욱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블라지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자아의 핵심 안에서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책임감 판단이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성격 조직화의 중심적 경향인 자아 일관성(self-consistency)을 향한 성향에 의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랩슬리(Lapsley, 1996, p. 86)는 “콜버그에게 있어서 행위의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원리의 규정적 본질에 대한 개인의 충실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와 달리 블라지에게 있어서 행동의 도덕적 동기는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의 결과이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아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그러나 콜버그와 블라지의 도덕적 동기화를 대조적으로 설명한 랩슬리의 논평은 매우 조심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블라지가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자아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덕적 판단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도덕 이성의 영향을 받아 자아의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영향력의 방향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정체성이지, 그 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Blasi, 1984, p. 138). 블라지에게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구성은 사실상 하나의 진실한 도덕적 이슈이며, 도덕성과 선한 생활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블라지가 도덕적 추론과 성찰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경과학에 대한 블라지(2009, p. 423)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도덕적 직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관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검토하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성적 성찰은 특히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행위는 물론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유에 근거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성이 없이는 주체적 자아의 여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경과학은 비개인적인 맥락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행위자의 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욕구와 직관에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의미를 따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욕구, 기억, 사고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단일하게 통합하고 조직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존재인데, 신경과학은 이러한 자아의 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렇듯 블라지는 행위자적인 자아(agentive self)의 역할을 무시한 신경과학의 결정론적인 성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블라지는 도덕성에 있어서 정체성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체성의 구조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는 하나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Blasi, 1993, p. 117). 하나는 각자의 자아감이 구성되는 것을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이다. 도덕적 이상은 그러한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양식이다. 둘은 정확하게 직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당히 독립적이다. 블라지는 이것을 정체성의 객관적 측면(정체성 내용)과 주관적 측면(정체성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me'와 'I'의 개념 구분과 유사한 것이다.

주관적 정체성이 성숙함에 따라서 몇 가지의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한다. 자아감은 신체적 특징, 관계, 행동과 같은 외적인 정체성 내용보다는 오히려 가치와 목표 같은 내적이고 심리적인 정체성 내용에 더욱 더 근거하게 된다. 덧붙여 자아는 더욱 조직화되고 통합적인 것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 자신의 자아감에 더욱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되는 방식으로 정체성 내용의 위계적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주관적 정체성의 성숙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행위자 감각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신이 가장 신경을 쓰는 정체성 내용은 자신의 핵심적인 자아로 실효성 있게 전유되어진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강화된 소유감 혹은 지배감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은 정체성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체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달리 말해 주관적 정체성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자기 일관성을 향한 강한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핵심적인 자아에 대한 충실성이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게 되며, 그래서 자아 일관성은 강한 부정적 정서를 이끌어낸다.

정체성의 구조에 대한 블라지의 생각을 도덕성에 관한 그의 이론적 틀과 병합하게 되면,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의 원천으로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성의 객관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서 도덕적 관심이 자신의 정체감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치와 목표 같은 도덕적 정체성 내용을 가진 개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경험은 다르게 나타난다. 블라지(1993, p. 103)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부 개인들은 도덕성을 그들의 자아감, 즉 정체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도덕적 이상과 요구가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 즉 그들이 통제감을 느낄 수 없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이 경우에 도덕적 이상은 다른 특성들과 인접하여 존재한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상이나 요구를 제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도덕성을 간주하고, 그것의 취약함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 이상을 보호할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자신의 자아감을 보전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체성 내용과 도덕적 행동 간의 연결은 주관적 정체성 성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덕적 정체성 내용의 동기 부여적인 힘은 도덕적 정체성의 내용들이 핵심적 자아로 실효성 있게 전유됨으로써 증가하는 것이다. 개인이 도덕적 관심을 스스로 전유할 때, 성숙한 주관적 정체성의 특징(예: 강화된 자기 일관적인 동기와 자신의 핵심적인 자아를 실현하려는 결단과 헌신)은 도덕적 동기화의 강력한 원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후에 블라지는 도덕적 자아 모델을 새롭게 정립한 '도덕적 의지로서의 인격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도덕적 의지가 도덕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도덕적 욕구가 다른 욕구나 신념들과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블라지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와 테일러(Taylor)의 이론을 참조하여 도덕적 의지로서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도덕적 의지로서의 인격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Blasi, 2004, p. 189).

첫째, 욕구의 위계 구조에 근거하여 인간 심리 전체에서 도덕적 의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개인 각자에게는 수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지만, 각자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한다.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욕구들에 대해 반성하여 자신의 의지를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일차적 욕구들을 반성하여 생성된 이차적 욕구들은 자아의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이차적 의욕(volition)이 된다. 이러한 이차적 의욕의 형성은 곧 의지의 형성을 의미한다.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수많은 다른 욕구들과 경쟁한다. 만일 다양한 욕구들을 반성하여 도덕적 욕구를 자신의 일부로 결정한다면 도덕적 의욕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의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정체성은 덕과 인격의 심리적 토대이다. 도덕적 인격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 성실, 정직과 같은 낮은 수준의 덕 이외에도 인격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위해 의지와 관련된 덕과 자기 통합의 높은 수준의 덕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의지는 도덕적 이상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욕구로써 능동적이다. 자기 통합성은 성격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조화롭고, 완전한 전체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경우, 자아는 내적으로 일관적이다. 이러한 자기 통합에 의해 자신의 신념이나 소중한 가치나 이상들이 자아와 일체화되어, 자아의 중심이자 근본인 도덕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인격의 핵심은 도덕적 의지이다. 도덕적 정체성, 달리 말해 도덕적 인격은 도덕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도덕적 의지는 도덕적 선을 열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의지로서, 도덕적 이해에 근거한 반성을 통해 형성된다. 이렇듯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에 근거하여 반성적·비판적으로 검토된 행동에 대해서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나바에즈와 랩스리(Narvaez & Lapsley, 2009, p. 241)는 도덕심리학에 대한 블라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블라지는 도덕적 행동의 자아 모델, 도덕적 정체성, 의도적 자아, 도덕적 인격의 본질, 도덕적 의지의 발달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고 주장하

였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고려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에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때 도덕적 판단에 입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가교시키는 이론적 용어로서 도덕적 정체성 개념을 도입하는 동시에 어떤 기제가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시켜 주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달리 말해, 블라지의 연구는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도덕적 기능 수행에 대한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도덕적 정체성의 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적 불꽃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주관적 정체성의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아 일관성을 향한 욕구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설명 기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 관심을 중심으로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관심에 일치하여 살려는 강한 의무감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 모델에 대한 경험 연구의 성과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개념은 이론적·철학적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많은 경험 연구들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경험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신뢰할만한 측정 도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Aquino & Reed, 2002, p. 1423).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척도는 두 가지이다. 블라지의 연구에 고무된 아퀴노와 리드(2002)는 도덕적 정체성의 자기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적 특성을 소유한 것에 대해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와 개인이 일상적인 활동에서 타인과 도덕성에 대해 소통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징화(symbol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척도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이 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전형(예: 배려, 친절, 관대, 정직 등)들과 연합된 일군의 특성들을 지니기를 바라는지를 질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다른 척도는 자아 가치의 우발성에 관한 척도이다(Crocker & Wolfe, 2001, p. 593). 이 척도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유덕한 행동들이 전반적인 자아 가치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신체적 외모, 학업 성취, 신의 사랑 등과 같은 도덕 외적인 요인들은 별도로 한 채, 유덕한 행동이 자아 가치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척도에서 도덕성은 개인이 자신에 관해 좋게 느끼기 위해 열망하고

의존해야 할 우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Monin & Jordan, 2009, p. 346).

도덕적 동기화에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을 규명하려는 경험 연구로서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콜비와 데이먼(Colby & Damon, 1992; Bergman, 2002, p. 115)은 도덕적 귀감이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덕적 대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개인들은 그들의 자아와 도덕적 목적 간의 통일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 고유의 관심과 도덕적 목적은 거의 동의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개인들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블라지의 모델을 간접적으로 입증시켜 준다. 한편 도덕적 귀감이 되는 15명의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15명의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Hart & Fegley, 1995, p. 1346).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귀감이 되는 청소년들은 비교 집단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을 정의할 때에 도덕적 성격 특성(예: 정직)과 도덕적 목적(예: 타인을 돕는 것)을 빈번하게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귀감에 대한 연구들은 도덕적 관심이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안정되고 실제적인 도덕적 헌신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동기로써 기능한다는 블라지의 주장을 어느 정도 입증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도덕적 행동의 선행적 예측 인자로서 도덕적 정체성을 측정한 학자들의 연구도 존재한다. 아놀드(Arnold, 1993)는 도덕성을 자기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덕목을 자신의 자아감에 핵심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덕목을 중시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를 제시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도덕적 행동 실천에 있어서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한다(Hardy & Carlo, 2005, p. 240에서 재인용). 아퀴노와 리드(Aquino & Reed, 2002, p. 1424)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 간의 연결 관계를 조사한 결과, 둘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아퀴노와 맥페런(Aquino & McFerran, 2011, p. 707)은 도덕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상승(moral elevation)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덕적 상승은 도덕적 정서의 일부분으로서 모종의 행위 경향성을 동기화시켜 준다(Haidt, 2003, p. 852). 도덕적 상승을 경험하는 것은 도덕적 귀감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같은 행동 개시 경향성 및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높여준다. 도덕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상치 않은 도덕적 행동에 노출되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심리적 중요성, 적절성,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듯 아퀴노와 맥페런의 연구는 도덕적 상승의 경험이 도덕적 정체성, 이례적인 도덕적 행동의 목적,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덕적 정체성과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블라지의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입증시켜 주었다. 하지만,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행위에 선행하거나 혹은 원인이 된다는 확고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므로 어떤 결

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IV. 블라지의 자아 모델의 강점과 약점

1. 자아 모델의 강점

블라지는 도덕적 행동을 위한 인지적 동기는 행동 속에서의 자아(oneself-in-action)에 대한 충실감을 향한 경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도덕적 행동의 동기는 자아 일관성을 향한 경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블라지는 그것을 객관성과 진리를 향한 인지적 동기라고 보았다. 도덕적 행동의 동기는 도덕적 헌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상당수의 학자들이 자아의 도덕적 동기화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하디와 카를로(Hardy & Carlo, 2005, pp. 236-239)는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그들의 분석 내용을 참조하는 가운데, 블라지가 제시한 자아 모델의 강점과 약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블라지는 자아의 중심적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블라지에 의하면,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도덕적 동기화의 한정된 부분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성을 향한 자아의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체성의 개념을 정교하게 만들어 그것이 도덕적 기능 수행을 위한 가교가 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점에서 블라지의 관점은 자아의 동기화에 관련된 다른 이론적 관점들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둘째, 블라지는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도덕성에 대한 자아 기반 모델과 결합함에 있어서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주는지에 대해 가장 정교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있다. 특히 블라지는 경험적 정체성에서의 성숙이 자신의 내적 자아와 일치한 채 남아 있고자 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강한 욕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적 자아가 도덕적 관심에 집중할 때에 강력한 도덕적 동기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셋째, 블라지의 모델은 도덕적으로 관련된 능력(예: 공감, 도덕적 추론, 도덕적 도식)에서의 차이보다는 도덕적 욕구에서의 개인차가 도덕적 행동에서의 개인차의 근원이라고 본다는 점에 있어서, 도덕성에 대한 행위자적인 관점을 잘 보여준다. 자아에 대한 행위자적 관점은 오늘날 연구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블라지에 따르면, 정체성 성숙은 증가된 행위자적인 감각과 연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어떤 측면들(예: 가치, 목표, 성격 특성, 정서)을 그의 자아감에 중심적인 것으로 전유하는 반면에, 여타의 것들은 단지 수용하거

나 혹은 아예 거부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핵심적인 정체성 내용으로 선택된 것들에 대한 소유감과 더불어 그것들을 보호하고 실현하려는 의무감과 헌신감을 산출한다. 개인은 인지 발달과 사회화를 통하여 도덕적 이해를 획득하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은 도덕적 가치들을 그의 자아감과 통합시킴으로써, 도덕적 가치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개인적 중요성을 주입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행위자적인 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나름의 도덕성에 대해 증가된 통제감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을 더욱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블라지는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을 도덕적 이해 위에 확고하게 정초시킴으로써 그가 말하는 도덕적 정체성이 참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Blasi, 2004, p. 343). “개인이 도덕적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도덕 규범과 도덕 이상이 선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핵심적 결단에 위배되게 행동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배반이자 자신의 자아감에 해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려는 욕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성에 대한 개인의 주의력과 관심에 근거하여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치(Nucci, 2004, pp. 111-132 참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블라지가 일종의 윤리적 이기주의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블라지는 단순히 자기 일관성을 위한 욕구를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도덕적 행동은 도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여 남아 있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블라지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의 핵심, 즉 본질적 자아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이해는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힘이다. 이 점에서 그는 콜버그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도덕적 지식이 자아에 통합되어 도덕적 정체성이 될 때 비로소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콜버그의 한계를 극복한다(Stets & Carter, 2011, p. 194). 달리 말해, 블라지는 도덕성의 인지적 토대들이 자아에 통합되어야만 도덕적 기능 수행을 더욱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기능 수행에 대한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정체성을 규정한다. 정체성의 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적 불꽃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관적 정체성의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아 일관성을 향한 욕구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설명을 해 준다. 개인이 도덕적 관심을 중심으로 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한 관심에 일치하여 살려는 강한 의무감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 모델의 약점

정체성과 도덕성에 관한 블라지의 통찰력 있고 흥미로운 생각은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도덕성의 그러한 측면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독려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블라지의 모델이 어느 정도 자동적인, 그리고 심사숙고가 제대로 되지 못한 도덕적 행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매우 불투명하다. 현상주의(phenomenalism) 원리와 일치하는 관점을 지닌 블라지는 도덕적이라고 여겨져야 할 행위는 의식적인 도덕적 이유로부터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 인지적 기능 수행의 상당수는 암묵적·자동적인 것이기에, 현상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은 도덕적 영역을 일상생활과는 아주 낮은 행동들로 제한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덕적 삶을 확장적인 사고와 대안적인 도덕적 판단, 그 대안들 각각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련의 불일치하는 도덕적인 딜레마들로만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덕성은 친구와의 친숙한 관계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 낯선 사람들과의 예기치 못했던 만남, 일상적인 사업상의 거래,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관계의 질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겉으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관계들은 의무 윤리학이나 현상주의에서 거의 분석되지도 않았고 문제시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경우에서도 도덕성은 예기치 못했던 것들을 통해 나타나며 순간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단순하고 무료한 날에 이루어지는 많은 행동들도 도덕적인 함축을 담고 있는 것이다. 블라지(2004, p. 339)는 도덕성이 도덕적 이해에 근거를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라고 여겨져야 할 행동에 필수적인 도덕적 이해의 유형은 암묵적이거나 무언의 것일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도덕적 정체성을 암묵적인 도덕적 기능 수행과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여전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블라지의 자아 모델에서 도덕적 정체성은 성인 초기 이전에는 도덕적 동기화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Hardy & Carlo, 2005, p. 238).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도덕적 동기화는 성숙한 정체성이 도덕적 관심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자아감과의 일치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주관적인 정체성의 형태는 최소한 청소년기까지는 전형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라도 대다수의 개인에게 있어서 부재할 수 있다. 이것은 성인기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쉽게 동기화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오히려 도덕적 동기화는 도덕 원리를 옹호하려는 욕구와 같은 다른 관심들로부터 유래할 것이다. 이에 대해 블라지는 여타의 도덕적 동기들은 도덕적 정체성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덕적

관심이 성격에 통합되어지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만 어린 시기에서의 도덕적 동기화와 헌신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초기 도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데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

셋째, 블라지의 도덕적 정체성 모델은 발달 과정과 내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블라지는 정체성과 도덕성은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발달하다가 청소년기 동안에 혹은 그 이후에 한 개인 안에서 통합되거나 합쳐지는 두 가지의 심리 체제라고 주장한다. 블라지는 경험적 정체성의 발달 순서 양식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개인의 발달적 진보 과정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블라지는 어떤 개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도덕적 관심에 집중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의 이유와 방식에 대해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Hart, 2005, p. 258). 따라서 그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적 세계와의 연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블라지의 모델은 정서의 역할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Hardy & Carlo, 2005, p. 238). 블라지는 도덕적 정체성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서의 역할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 실제로 행하는 것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행동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죄책감과 같은 정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Stets & Carter, 2011, p. 194). 사실 블라지는 심리학에서 논의되어 온 정서는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동기화를 위한 수용할만한 설명 기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서가 도덕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서가 행위자적인 과정에 착근되어 있고 의식적 관심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Blasi, 1999, p. 1). 블라지가 동기와 욕구와 같은 정의적 구성 요소들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전반적인 이론 체계에서 정서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를테면,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가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체성과 행동을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 간의 인과적 본질에 대한 문제이다. 블라지에게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행동의 전조로 여겨진다. 그러나 종단연구 결과들은 둘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프래트와 그 동료들(Pratt et al., 2003, p. 563)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자아가 이후의 지역사회 관여를 예측해주지 않았으나, 반대의 효과는 의미심장했다고 한다. 즉 지역사회 관여는 이후의 도덕적 자아를 예측해 주었다고 한다. 이 연구의 의미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의 긍정적 연합은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다. 도덕적 행동에의 관여는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 정체성은 나중에

도덕적 동기와 헌신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몇 가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성에 관한 논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 정체성이 항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Stets & Carter, 2011, p. 194). 이를테면, 최근의 도덕적 면허(moral licensing)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개인에게 신임장을 제공하여 도덕적 추구를 완화시키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에 관여하게 하는 면허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자신을 도덕적 행위자로 파악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은 자아 완전감의 추구하고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행동을 상기시키는 것은 도덕적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관된 도덕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테면 비도덕적 행동을 상기시키는 것은 도덕적 행동에 대한 관여를 높여주었으나, 도덕적 행동을 상기시키는 것은 도덕적 면허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ordan, Mullen & Murnighan, 2011, p. 2). 또한 하디와 카를로(Hardy & Carlo, 2005, p. 238)는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인들이 자아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자동적인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 확장·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3.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한 시사점

블라지의 자아 모델에 대한 평가에서 남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것이다.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기능 수행의 중요한 요소라면, 그것이 어떻게 형성·발달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블라지는 도덕 발달과 정체성 발달의 목표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을 상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 발달과 정체성 형성의 발달적 경로가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블라지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지의 자아 이론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을 설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와 자아의 결합은 대략 12세 무렵부터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어린 아동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이해는 하지만,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개인적 책임감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덧붙여 어린 아동은 도덕적 위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도 못한다. 중학생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자아감을 도덕적

이해와 통합하려는 능력이 발생하며, 이렇게 형성된 도덕적 자아감은 도덕적 동기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된다(Power, 2006, p. 1).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을 가교시키는 이론적 기제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블라지의 이러한 통찰은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

블라지의 자아 이론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도덕적 이해와 자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도덕적 정체성의 탐색과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아놀드(Arnold, 1993)의 연구는 조사 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자신들의 자아를 도덕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Power, 2006, p. 1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자아의 핵심에 설정하도록 촉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 개입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상적 자아),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무서운 자아), 그리고 현재의 자기 모습(현실적 자아)을 기술하여 비판적·반성적으로 음미해 보게 하는 활동은 도덕적 이해와 자아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상적 자아에 대한 기술은 미래에 대한 개인의 지향을 설계해 주는 모종의 명시적인 도덕적 가치 지침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무서운 자아에 대한 기술은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또는 자신이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모종의 암묵적인 도덕적 가치 지침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블라지는 도덕적 정체성의 핵심을 도덕적 의지로 간주하면서, 도덕적 의지는 도덕적 이상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욕구로서 본질상 능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적 자아와 무서운 자아, 그리고 현실적 자아를 비교해 보는 활동은 블라지가 말하는 도덕적 의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파워(2006, p. 1)는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 속에 도덕적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바람직한 시민 행동에 참여하는 경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인 렌즈를 통해 반성적·비판적으로 검토해보게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도덕적 이해와 자아를 통합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교육 활동은 바로 최근의 도덕적 정화(moral cleansing)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덕적 정화 이론에 의하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자아의 불완전함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범한 위반 행동을 상징적으로 정화하고 자신들의 도덕적 자아를 다시 단언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연구자들이 피험자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상기시켰을 때, 피험자들은 중립적인 상품(예: 펜)보다는 정화 상품(예: 비누)을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Jordan, Mullen &

Murnighan, 2011, p. 1). 이것은 정화 상품이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상징적으로 씻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자기 이미지에 대한 위협은 자신의 도덕적 자아의 상징들을 획득하기 시도의 일환으로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준다.

사실 도덕교육에서는 악덕에 비해 덕을, 비도덕적 행동에 비해 도덕적 행동을 우선시하였으며, 악덕이나 비도덕적 행동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도덕적 정화 이론에 의하면, 악덕과 비도덕적 행위도 도덕교육의 중요한 학습 소재나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도덕적 위반 행동을 상기시키고 그와 관련된 사고와 감정에 대해 논의·성찰해보게 하는 교육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위협에 처한 그들의 자아 완전감(sense of self-completeness)을 다시 단언하기 위해 향후 보상적인 행동으로서의 도덕적 정화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비도덕적 행동은 자신의 도덕적 자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손상된 도덕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덕적 정화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도덕적 정화는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블라지의 자아 이론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추론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내면화보다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선호함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와 자아를 통합하려는 행위자의 추론과 성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블라지(2009, p. 423)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유에 근거한 반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성이 없이는 행위자적 자아의 여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서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에 근거하여 성찰적으로 검토된 행위만이 참다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이다.

블라지에 의하면 연령의 증가로 인해 행위자 감각이 제고됨에 따라서 도덕적 이해와 자아를 통합하는 능력이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추론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블라지(2009, p. 429)는 무관심, 산만, 회피는 도덕적 성숙과 무관·유해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관련된 도덕 문제에 함축된 이슈와 정보를 조사하고, 가능한 대안적인 행동 방안을 모색하며, 각 대안의 결과들을 예측해 보고, 문제와 관련된 상이한 가치와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해보고, 책임감 있게 결정을 내리는 하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도덕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블라지의 대부분의 논의들이 청소년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론 체계가 아동기에 있어서의 도덕적 정체성의 전조나 형성에 대해 아무런 시사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여기서는 블라지의 자아 이론에 대한 여러 비판 이론들에 근거하여 블라지의 모델이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의 정신분석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도덕적 정체성의 전조를 이해하는데 부분적인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나 규칙에 순응하면서 그들 자신을 착한 아이 혹은 나쁜 아이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러한 도덕적 요소를 자아감에 갖고 있는 미취학 아동은 그릇된 것을 하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느끼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보상하려 하며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염려하는 개인으로서 자신들을 묘사하는 진술에 찬성하였다 (Kochanska, 2002, p. 339). 도덕적 정체성의 정의적 토대(예: 공감, 죄책감, 수치심)와 그것의 도덕적 이상과의 통합 그리고 자신의 자아감과의 통합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자아감의 일부 측면들은 아동기에 발견될 수도 있다.

물론 블라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코찬스카의 도덕적 자아는 단순한 복종이나 내면화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블라지가 말하는 성숙한 도덕적 의지의 주관적이고 행위자적인 특성들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블라지는 코찬스카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자아 모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라지는 도덕적 정체성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코찬스카의 연구 결과는 자아 통제, 충실성, 도덕적 욕망의 근원이 상당히 관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덕적 정체성은 안전한 애착의 역사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의(emergent) 도덕적 자아가 보여주는 순종은 굴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각적 편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배려 제 공자와의 긍정적이고 정의적인 대인 관계에 의해 동기화된 현신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도덕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지극히 사회적이며 정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로서의 주관적 자아의 도덕적 욕망을 위한 발달적 근원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 제도에 의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모종의 대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바에즈와 랩스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Narvaez & Lapsley, 2009, 252), 배려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모와 교사와의 강한 유대감은 아동의 도덕적 정체성이 발달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통하여 도덕적 이해와 정체성의 발달은 도덕과 자아 체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도덕적 이해 발달은 도덕적 이슈에 관한 대인관계적·이데올로기적 사고를 향한 이동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아동과 비교할 때, 청소년은 타인의 기대·태도·요구에 더욱 민감하며, 타인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청소년의 도덕성은 본질상 더욱 원리적이고, 아동기 도덕성의 특징인 처벌과 상호성과 같은 외적 요인들에 덜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기에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책임감에 근거를 둔 도덕성을 향한 이동은 정체성과의 통합을 위한 도덕 체계를 준비시킨다.

정체성 체계에서의 성숙은 도덕성과의 통합을 위한 방식을 열어주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이동을 유발한다(Hardy & Carlo, 2011, p. 506). 청소년 초기에 자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인성 관점으로부터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자기 이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많은 측면들은 도덕적으로 적절하다. 둘째, 청소년 후기 동안에 자아는 더욱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의되어 자아는 자신의 도덕 원리, 종교적 신념, 정치적 관

점에 근거하게 된다. 달리 말해, 청소년은 도덕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자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론을 구축한다. 그래서 정체성은 본질상 더욱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되며, 그것은 도덕성과의 통합을 위한 준비이다.

청소년기와 그 이후 동안에 자아와 도덕성의 통합은 더욱 증가한 행위자 인식과 책임감에 의해서도 가능해진다. 아동이 옳음과 그름에 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소년보다는 옳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낀다. 자아로부터 도덕성의 분리는 행위자 감각의 미성숙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성숙한 행위자 인식이 부재한다면, 자신의 정체감에 중심적인 것으로서의 정체성 내용(도덕 원리)을 전유할 수 있는 인식이 없게 되고, 자신을 바람직하지 않은 정체성 내용과 떼어 놓으려는 인식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은 책임감을 덜 느끼고, 자기 행동과 정체성에 대한 소유권도 덜 느끼고, 자아 일관성에 대한 관심도 덜 느낀다. 대신에 아동은 내적인 도덕 기준보다는 외적으로 조절되어 충동과 욕망, 외적인 결과, 타인의 지각에 의해 더 추동된다(Hardy & Carlo, 2011, p. 507). 따라서 아동기에 도덕적 정체성의 전조가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청소년기를 통해 여전히 성숙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의 관여·요구 그리고 전반적인 가족의 지원은 도덕적 정체성의 전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를 인식하게 하는 귀납적 훈육은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와 관계가 있으며,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다(Patrick & Gibbs, 2012, p. 973). 반응성, 자율성, 요구 사항에 근거한 권위 있는(authoritative) 훈육 방법은 청소년의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효과적이며,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도 적게 느끼게 만든다. 또한 부모의 따뜻함은 도덕적 가치를 자아로 내면화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Hardy, Bhattacharjee, Reed & Aquino, 2010, p. 119). 도덕성과 정체성의 통합은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여타의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도덕 원리에 관한 학습 및 행동을 위한 기회 제공에 의해서도 고무될 수 있다(Youniss & Yates, 1999, p. 361). 즉, 아동 및 청소년기에 도덕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개인이 그러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학습하고, 세계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달리 말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실천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듯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을 위한 모종의 도덕교육적 시사점도 어느 정도 제공해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 론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 발달과 정체성 형성의 교차를 의미하는 이론적 구성물이다.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추론을 도덕적으로 행동으로 연결시켜주는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블라지의 설명은 도덕적 동기화의 원천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콜버그 이론의 유산인 도덕적 이해와 도덕적 행동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서 블라지는 도덕적 기능 수행의 자아 모델(self model)을 제안하였다. 어린 아동의 경우 옳음과 그름을 식별하는 것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블라지는 개인의 성격 안에서 도덕적 이해가 모종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의 구조, 즉 도덕적 정체성에 통합되는 것을 통하여 동기적 힘을 갖는 것이지, 도덕성 그 자체가 동기적 힘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점에서 콜버그와 차별성을 보인다.

블라지는 도덕 판단이 도덕적 정체성에 근거한 책임감 판단을 통해 여과되어 자기 일관성을 향한 경향성에 의해 행동으로 추진된다면, 도덕적 행동을 더욱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블라지에 의하면,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아의 핵심 안에서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책임감 판단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성격 조직화의 중심적 경향인 자아 일관성(self-consistency)을 향한 성향에 의해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체성과 도덕성에 관한 블라지의 통찰력 있고 흥미로운 생각은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도덕성의 그러한 측면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독려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 이후에 도덕적 정체성이 도덕적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확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체성과 도덕성의 연결은 여전히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블라지의 자아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도덕적 행동에서 자아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어떻게 동기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 도덕적 욕구에서의 개인차가 도덕적 행동에서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보았던 점, 자아 일치를 향한 욕구가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시키는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블라지의 자아 모델은 자동화된 도덕적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발달 과정과 내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배타적으로 청소년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정서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한다는 점, 도덕적 정체성과 도덕적 행동의 인과적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미비하다는 약점도 갖고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블라지의 자아 모델이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주는 교육적인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상적 자아와 무서운 자아 그리고 현실 자아 간의 비교, 비도덕적 행동을 활용한 도덕적 정화, 추론과 성찰을 중시하는 교육은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있는 훈육 방법과 봉사 활동 참여 등과 같은 도덕적 행위의 실천을 통해 아동기에서도 도덕적 정체성의 전조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물론 블라지의 모델이 도덕적 정체성에 최종 모델은 아니다. 우리는 블라지의 모델을 도덕적 동기화, 즉 도덕성과 정체성 간의 연결을 조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블라지의 생각은 아직까지 경험 연구의 충분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블라지의 모델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손경원(2005). 도덕적 정체성의 초등 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18, 287-316.
- 이인재(2007). 도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의 과제. *초등도덕교육*, 23, 95-118.
- 정영우(2010). 도덕적 정체성 연구의 통합적 접근법 모색. *윤리교육연구*, 21, 49-80.
- 정창우(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Aquino, K., & Reed, A. (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423-1440.
- Aquino, K., & McFerran, B. (2011). Moral identity and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in response to acts of uncommon goodness.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0(4), 703-718.
- Arnold, M. L. (1993). The place of morality in the adolescent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93-209.
- Bergman, R. (2002). Why be moral? A conceptual model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Human Development*, 45, 104-124.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 Blasi, A. (1983).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 178-210.
- Blasi, A. (1984). Moral identity: Its role in moral functioning.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128-139). New York: wiley.
- Blasi, A. (1995). Moral understanding and the moral personality: The process of moral integra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229-253. Needham Heights: Allyn & Bacon.
- Blasi, A. (1999). Emotions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9, 1-19.
- Blasi, A. (2004). Moral functioning: Moral understanding and personality.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189-212. Mahwah: Erlbaum.
- Blasi, A. (2009). The moral functioning of mature adults and the possibility of fair moral

- reasoning. In D. Narvaez, & D. K. Lapsley (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Explorations in moral psychology*, 396-44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si, A., & Glodis, K. (1995).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lf as subject. *Developmental Review*, 15, 404-433.
- Carlo, G., PytlikZillig, L. M., Roesch, S. C., & Dienstbier, R. A. (2009). The elusive altruist: The psychological study of the altruistic personality. In D. Narvaez, & D. Lapsley (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Explorations in moral psychology*, 271-29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by, A., & Damon, W. (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Free Press.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Bulletin*, 108, 593-623.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Erlbaum.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Gibbs, J. C. (2003).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Beyond the theories of Kohlberg and Hoffma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852-8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y, S. A. (2006). Identity, reasoning, and emotion: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ree sources of moral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 207-215.
- Hardy, S. A., & Carlo, G. (2005). Identity as a source of moral motivation. *Human Development*, 48, 232-256.
- Hardy, S. A., & Carlo, G. (2011). Mor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and theory and research*, 495-513. New York: Springer.
- Hardy, S. A., Bhattacharjee, A., Reed, A., & Aquino, K. (2010). Mor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distance: The case of adolescent parental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3, 111-123.
- Hart, D. (2005). Adding identity to the moral domain. *Human Development*, 48, 257-261.
- Hart, D., & Fegley, S. (1995). Prosocial behavior and caring in adolescence: Relation to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66, 1346-1359.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 psychology, 261-361. New York: John Wiley.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rdan, J., Mullen, E., & Murnighan, J. K. (2011). Striving for the moral self: The effects of recalling past moral actions on future mor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10), 1-13.
- Kochanska, G. (2002). Committed compliance, moral self, and internalization: A mediation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339-351.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347-480.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 & Candee, D. (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53-73. New York: Wiley.
- Monin, B., & Jordan, A. H. (2009). The dynamic moral self: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D. Narvaez, & D. K. Lapsley (Eds.), *Personality, identity, and character: Explorations in moral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nroe, K. R. (2001). Morality and a sense of self: The importance of identity and categorization for moral a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3), 491-507.
- Monroe, K. R. (2003). How identity and perspective constrain moral choic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4(4), 405-425.
- Moshman, D. (2005). Adolesc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Rationality, morality, and identity. Mahwah: Erlbaum.
- Narvaez, D., & Lapsley (2009). D. K. Moral Identity, Moral Functioning,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In D. M. Bartels, C. W. Bauman, L. J. Skitka, & D. L. Medin. (Eds.). *Mo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37-274. Burlington: Academic Press.
- Nucci, L. (2000). The promise and the limitations of moral self construct. Presidential Address presented at the 30th annual meeting of the Jean Piaget Society: Society for the Study of Knowledge and Development, Montreal, Canada, June 3.
- Nucci, L. (2004). Reflections on the moral self construct. In D. K. Lapsley,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self, and identity*, 111-132. Mahwah: Erlbaum.
- Patrick, R. B., & Gibbs, J. C. (2012). Inductive discipline, parental expression of disappointed expectations, and mor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973-983.

- Power, C. (2006). The development of the moral self. A paper presented at Notre Dame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Moral Character. October 12-14, 1-4.
- Pratt, M. W., Hunsberger, B., Pancer, S. M., & Alisat, S. (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personal values socialization: Correlates of a moral self-ideal in late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12*, 563-585.
- Stets, J. E., & Carter, M. J. (2011). The moral self: Applying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4*(2), 192-215.
- Youniss, J., & Yates, M. (1999). Youth service and moral-civic identity: A case for everyday moralit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1*(4), 361-376.

· 논문접수 : 2013-01-01/ 수정본접수 : 2013-02-04/ 게재승인 : 2013-02-22

ABSTRACT

A critical appraisal of Blasi's self model

Beong-Wan Chu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regarding moral motivation has focused on for decades on the roles of moral reasoning and moral emotion. Recently, several scholars are increasingly convinced that moral identity may play an important part in moral functioning. Although several models of morality position a role for identity, Blasi's model of moral identity includes the most elaborated conception of identity and the most detailed linkages between identity and moral functioning. An individual has a moral identity to the extent that he or she has constructed his or her sense of self around moral concerns.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Blasi's self model that links moral identity with moral functioning. Blasi's insightful and intriguing ideas regarding identity and morality have inspired interest in moral identity. But there are several theoretical problems in which Blasi's model could be extended. Finally, I proposed implications of Blasi's self model to moral education. Although Blasi didn't deal with the methods of moral identity formation, there are some educational clues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ral identity in both homes and schools.

Key Words : Blasi, moral identity, moral motivation, moral education, self model